

국가 간의 데이터 이전

1.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 준수

- 각 국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과 규제를 갖고 있음
- 유럽연합의 GDPR은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서 EU 외부로 부터 데이터 이전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함
- 데이터가 이동하는 국가의 법이 GDPR이나 미국의 CCPA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이전에 제약이 발생

2.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위험

- 국가 간 데이터 이전 시 데이터가 해킹이나 불법 접근의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짐
- 특히 데이터가 물리적 서버를 통해 이동하거나, 타 국가의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되는 경우에 위험이 더 커짐

* **GDPR**: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으로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법

* **CCPA**: California Customer Privacy Act 으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부터 기업이 수집하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

국가 간의 데이터 이전

3. 데이터 거버넌스와 권한권 문제

- 어떤 국가에 저장된 데이터가 다른 국가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 - 데이터가 미국에 저장되면 미국 법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
이 경우 개인 정보 보호가 제3국의 요구에 의해 위협 받을 가능성도 있음
- 이로 인해 기업은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와 해당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관리 필요

4. 데이터 로컬화 요구사항

- 일부 국가는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국가 내부에 저장할 것을 요구하는 "데이터 로컬화" 규제가 있음
- 중국, 러시아, 인도 등은 자국의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규제 존재
- 이는 데이터 이동을 제한할 수 있고 기업이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하는 부담이 초래 됨